

성상근 습상원 (性相近 習相遠)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論語』, 〈陽貨 篇〉

자왈 성상근야, 습상원야. 『논어』, 〈양화 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본성은 서로 가까운 것이지만, 습성이 서로 멀어지게 한다”

* 習相遠也(습상원야) : 습성이 서로 현격하게 다르다. 그리하여 사람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뜻이다.

* 習(습) : 습관이나 교육 등 후천적인 환경을 가리킨다.

사람의 태고 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자라면서 사람에 따라 습성이 달라지면서 사람도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곧 학문과 수양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 비슷한 본성이 교육의 유무에 따라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 이 말씀은 훗날 맹자와 순자에 이르러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선천적으로 태고난 본성(本性)은 서로 비슷하지만, 후천적으로 배양되는 습성(習性)은 현격하게 다르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배우고 수양을 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善)하게 태어나지만, 이러한 선한 본성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지키기 위해



민경조

前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코오롱건설 부회장

저자(著者)는 코오롱건설 CEO로 재임하던 1999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회원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협회의 회원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오랜기간 CEO로 재직한 경험을 담은 『논어 경영학』(2009년, 청림출판)이 있다.

서는 꾸준한 노력 즉 확충(擴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순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맹자를 맹렬히 비난했다. 순자는 그의 저서 『순자(荀子)』, 〈비십이자 편(非十二子 篇)〉에서, 맹자학풍의 태두라고 알려진 자사(子思-孔子의 손자)를 둑어 그 두 사람을 문견잡박(聞見雜博)이라 비난했다. 略法先王而不知其統, 然而猶材劇志大, 聞見雜博. 案往舊造說, 謂之五行,(즉 대략 옛 임금들을 법도로 삼기는 하지만, 그 정통을 알지 못하며, 점잖은 체하지만 성질은 격하고 뜻은 크며 듣고 보는 것이 잡되고도 넓다. 옛날 일을 참고해 자기의 학설을 만들고 그것을 오행이라 부르고 있다.)

'듣고 본 것이 여러 가지로 넓지만', 유가(儒家)의 정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本性)은 원래 악(惡)하게 태어나지만, 교화(敎化)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善)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청출어람(青出於藍)인데, 사자성어로 대표되는 원전을 남겼다. 青, 取之於藍而青於藍. 氷, 水爲而寒於水.(푸른 물감은 쪽, 즉 남(藍)으로부터 얻는 것인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 말은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어도 교육 즉 교화(敎化)를 통해 얼마든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순자(荀子)』, 〈권학 편(勸學 篇)〉.

훗날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북위(北魏)의 이밀(李謐)이라는 사람이 스승 공번(孔璠)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배웠는데, 이밀의 학문적 발전 속도가 빨라 스승 공번을 능가하게 되자, 스승 공번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선언하고 도리어 그를 스승으로 삼고자 했다. 여기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말할 때 흔히 '청출어람(青出於藍)'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이야기하면서 원래의 교화(敎化)를 통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개선해서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들어 교화 즉 교육을 강조한 순자의 말씀이 조금은 본뜻이 변질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맹자의 성선설도 끊임없는 확충을 통해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고, 순자도 비록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나지만,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인간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인간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확충, 교화, 교육, 학습, 수양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순화과정은 같지만,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은 2,300 여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 우리사회는 반인륜적(反人倫的)인 끔찍한 살인사건이 넘쳐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멈추지 않을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든, 악하든 결국은 올바른 교육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혐악한 살인사건이 연속되는 사회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답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